



지친 세상 위로하러 히어로들 온다



원더우먼

막강파워·새 이야기로 잇따라 개봉

영웅 캐릭터 치열한 흥행 대결

스파이더맨, 엑스맨, 원더우먼 등 할리우드 영화의 슈퍼히어로들이 한층 더 막강해진 파워와 새로운 이야기를 앞세워 몰려온다. 오는 3월 ‘로건’을 시작으로 스크린 ‘귀환 일정’이 빼곡하게 잡혀있어 슈퍼히어로 간 치열한 세 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수많은 영웅 캐릭터들을 배출한 미국의 양대 코믹스 마블과 DC코믹스가 벌이는 흥행 대결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로건’은 엑스맨의 대표적인 돌연변이 캐릭터 울버린이 단독으로 나오는 3번째 영화다. 2000년 ‘엑스맨’을 시작으로 이번 영화까지 17년간 9개의 작품에서 울버린 캐릭터를 연기해온 휴 잭맨은 사건의 중심이자 비밀을 간직한 소녀를 지켜내기 위해 새로운 돌연변이들과 전투를 벌인다. 로건은 울버린의 본명이다. 휴 잭맨은 이 작품을 끝으로 엑스맨 시리즈에 더는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는 5월4일 개봉한다. ‘가디언즈’는 2014년 마블 영화 최초로 지구를 넘어 은하계로 무대를 넓힌 시리즈다. 남다른 개성을 지닌 은하계의 엉뚱한 히어로들이 은하계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내용이다. 이들은 전편보다 더욱 강력해진 전투 능력을 지니고 돌아온다. 촉각으로 마음을 읽는 능력을 지닌 캐릭터인 팬티스가 새 멤버로 합류한다. 전작에 이어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패신저스’의 크리스 프랫과 조 셀다나 등이 1편에 이어 다시 뭉쳤다.

DC코믹스의 여성 히어로 ‘원더우먼’은 6월1일 국내 상륙한다. 지난해 ‘배트맨 : 저스티스의 시작’(2016)에서 얼굴을 내민 원더우먼은 이번에는 단독 주연으로 활약하며 걸크러시(여성이 여성에게 반할 만큼 멋지다는 뜻)의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아마존의 공주이자 무적의 전사로 훈련받은 다이애나는 바깥세상에 벌어지는 대규모 분쟁을 막기 위해 아마존을 떠난다. 이후 원더우먼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7월6일 간판을 내거는 ‘스파이더맨 : 홈 커밍’은 스파이더맨이 단독으로 출연하는 작품으로, 스파이더맨 탄생 55주년 기념작이기도 하다. 1962년 마블 코믹스에서 처음 선보인 스파이더맨은 그동안 만화는 물론 애니메이션, TV 드라마, 영화 등으로 제작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신작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 시빌워’(2016)에서 스파이더맨으로 출연했던 톰 홀랜드가 주인공 피터 파커역을 맡았다. 피터 파커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만나며 슈퍼히어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10월26일에는 ‘토르 : 라그나로크’가 한국 관객들을 찾는다. ‘천둥의 신’, ‘다크월드’에 이어 토르의 3번째 영화다. 줄거리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어벤저스’에서 함께 활약한 헐크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6일 개봉하는 ‘저스티스 리그’는 DC코믹스 슈퍼히어로들이 총출동해 DC 버전의 ‘어벤저스’로 불린다. 배트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사이보그, 플래시가 함께 유례없이 히어로팀을 결성해 새로운 위협에 맞선다. ‘배트맨’은 벤 애플렉이 맡았고, ‘슈퍼맨’의 헨리 카빌, ‘원더우먼’의 갤 가돔, ‘플래시’의 에즈라 밀러 등이 출연한다.

송해, 사망설 유포자 포용 “고소 안해”

“새해 액땀한 셈 치고 용서”…전국노래자랑 일정 소화

‘국민 MC’ 송해(90)가 자신이 사망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를 수사 의뢰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했다.

송해 매니저는 3일 “송해 선생님도 당일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화도 나셨겠지만 수사관이 막상 사무실에 찾아오자 ‘새해에 액땀한 셈 치고 용서해주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인터넷상에는 송해가 사망했다는 루머가 확산했고, 송해 측은 즉각 사망설을 부인하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송해는 현재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오는 6일 강원도 홍천으로 떠나 7일 오후 예정된 KBS ‘전국노래자랑’ 공개녹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향해도 재령 출신 실험단인 송해는 1955년 창공 악극단으로 데뷔해 60년이 넘도록 방송과 각종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는 특히 1986년부터 30년간 KBS 1TV ‘전국노래자랑’을 이끌어오면서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파이더맨



“댄싱 킹 귀환”

박남정 13년 만에 앨범 발매

1980년대를 주름잡은 ‘댄싱 킹’ 박남정(51)이 13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다. 박남정 소속사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남정 씨가 이달 선 공개곡을 선보인 뒤 2월 미니앨범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은 2004년 정규 7집 ‘어게인 2004’(Again 2004) 이후 13년 만이다.

관계자는 이어 “앨범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현재 뮤직비디오를 작업 중”이라며 “앨범에는 본인의 주특기를 살려 전반적으로 댄스곡 위주로 구성 하되 발라드도 더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연말에 공연을 두 번 했는데 지금 나이에도 1시간 30분 동안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걸 보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고 덧붙였다. 박남정은 MBC 합창단에서 활동하던 중 기획사에 스카우트돼 1988년 ‘야 바람이여’로 데뷔하며 인기 반열에 올랐다.

이어 1989년 2집의 ‘널 그리며’와 ‘사랑의 불시착’이 KBS ‘가요 토크텐’에서 모두 골든컵을 받으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특히 ‘널 그리며’의 ‘ㄱ-춤’은 연령대를 아우르며 선풍적인 히트를 했다.

그의 노래는 지난해 1월 종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통해 다시 주목받았다. 극 중 동훈(이동휘 분)이 ‘쌍문동 박남정’으로 불리며 춤 실력을 보여줘 박남정의 과거 인기가 재조명됐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한재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SBS 아침연속극 〈아침 쏘리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학특선 서가식당(재) 50 한국인의 팔도밥상 스페셜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재)	00 주말드라마 〈불이라 미용아〉(재)	00 예술론 토론회 30 고강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5 이웃집 찰스(재)	00 MBC 청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재)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품지락 55 테마스페셜
1	00 숨터 미래유산 100년 후 보물찾기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별별가족(재)	05 비타인(재)		55 닥터 365
2	00 다큐 공간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 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2시 뉴스브리핑
3	05 한국인의 방상(재) 55 튜브생물체조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스 아하 동물탐험대 55 프리파라 2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야사 쿵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프로젝트TV 필통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5 공감다큐. 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컬24 55 트릭 앤 트루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경제 발품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 10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	0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00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11	00 KBS 뉴스라인 40 신년기획 다채터스컷 히말라야 사람들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MBC 뉴스 24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카미오드벤처 -3부 미국 시애틀)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땃땃땃 유치원 1~2 08:45 놀이대장을 찾아라 09:00 주사위 요정 큐비라 09:15 시계마을 토키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원장 우거지탕과 김복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코코롱3(재) 14:25 책과 땅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기탐험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요술상자(2) 15:45 레이디버그(재) 16:15 두디다롱 16:30 놀이대장을 찾아라(재) 16:45 땃땃땃 유치원 1~2(재) 17:15 웅감한 소방차 레이(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달라졌어요(재)	20:40 다큐 오늘 〈살아있네, 목포〉 20:50 세계테마기행 〈알로하! 하와이 3부 전국에서의 휴식, 마우이〉 21:30 한국기행 〈북방의 기행 3부 맛있는 한 끼〉 21:50 EBS 다큐 프리미엄 〈절망을 이기는 철학:제백가〉 22:45 극한직업 〈상황버섯 따는 사람들〉 23:35 장수의 비밀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24:10 EBS 초대석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4일(음 12월 7일 辛卯)

 子	48년생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다면 해안이 생길 것이다. 60년생 치밀한 설계 못지않게 알찬 실행도 절실히 요청된다. 72년생 사심이 개입돼 있지 않은 사고로 판단해야 한다. 84년생 대책 마련으로 부실히 된다. 행운의 숫자 : 48, 17	 午	42년생 태만에 집착하지 않고 훗날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 54년생 관점을 달리해보자. 66년생 작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78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는다. 90년생 책무를 다 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다. 행운의 숫자 : 81, 58
 丑	49년생 힘들기는 하지만 거들어 주는 이도 있다. 61년생 발원하기가 딱 쑥스러울 것이다. 73년생 어김없이 처리해야 한다. 85년생 생 부담이 따를지라도 차체에 보완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2, 14	 未	43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졌을 때라야 보일 것이다. 55년생 회복할 수 있다. 67년생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하게 진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79년생 진위를 분명히 해야 손실을 줄인다. 91년생 능률이 오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70
 寅	50년생 인내는 곧 보람의 열쇠가 될 것이다. 62년생 마음을 비우고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하리라. 74년생 상대의 숨은 의중은 따로 있느니라. 86년생 불편하다면 오래도록 집착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행운의 숫자 : 61, 26	 申	44년생 많은 것을 주고받게 될 것이다. 56년생 행편을 보아기면 서 적절하게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68년생 간단하면서도 명료함이 생산적이다. 80년생 복잡다단했던 일이 늦게나마 정리될 소지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9, 47
 卯	51년생 발단은 사소하지만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도 있다. 63년생 발여 놓은 것 못지않게 끝까지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75년생 살피고 물어보는 것이 낫다. 87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6, 13	 酉	45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와 접촉하는 판국이 확연하다. 57년생 합리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리라. 69년생 기본적 가치는 불변하다는 것을 알라. 81년생 참으로 중대한 일이 벌어질 수다. 행운의 숫자 : 39, 18
 辰	52년생 외란의 모습에 흔들리지 말고 대중에게 대처하자. 64년생 꼭 이해해야 할 바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자. 76년생 내부 사정까지 살펴야 무리가 없겠다. 88년생 플라다 될 일을 알게 되어 걱정하리라. 행운의 숫자 : 01, 78	 戌	46년생 우려해 왔던 일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58년생 때와 장소를 잘 가리지 않으면 역효과가 난다. 70년생 영광을 안는다. 82년생 표현이 적절해야 속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5, 04
 巳	53년생 본격적인 판세라 할만하니 앞뒤 가리지 말고 주마가편해야 한다. 65년생 견인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77년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도다. 89년생 흐리던 날씨가 개이고 쨍하고 해가 뜨리라. 행운의 숫자 : 86, 73	 亥	47년생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해야겠다. 59년생 구태에서 벗어나야만 새로운 면모를 도모하게 된다. 71년생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83년생 핵심 골격이 수립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97, 5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